

화순군, 백아산 하늘다리 기지국 설치 협의회 개최

조난사고 빈번 발생...이동 3사와 통화품질 획기적 향상 방안 마련



화순군은 지난 25일 화순군청에서 이동통신 3사와 백아산 하늘다리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5일근무제 시행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백아산을 찾는 산행 인구가 연간 수 만명이 찾고 급증 추세에 있으나, 최근 백아산을 찾는 등산객이 길을 잃고 통신이 두절되어 조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

가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유명기 산림산업과장은 “백아산(해발810m)과 정상부에 위치한 ‘하늘다리’ 주변은 고산철쭉 군락지 등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인근 무등산, 화순온천, 관광목장, 자연휴양림, 적벽 등 각종 휴양시설이 산재하여 연간 수 만명의 등산객이 찾고 있어 군에서는 등산로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수차례에 걸쳐 등산객 부주의로 인해 등산객이 실종되고 산악지형에 따른 통신이 두절되어 119 소방대원과 직원 등이 야간 수색 작업을 하는 등 인명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동통신 3사간 원만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행정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산림산업과(☎379-3733)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희 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

소통행정 추진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높은 평가 받아



김순호 구례군수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0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공동체 역량 증진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을 주최한 거버넌스센터는 한국에서 최초로 거버넌스 캠페인을 시작한 단체다. 지난 4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생활 편의 확대, 행정 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강화, 공

동체 역량 증진, 미래개척 5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실시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천은사 입장료 문제 해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구성 운영, 구례형 교육자치 모델 구축, 지역 간 교류협력 추진 등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하여 많은 지역 현안을 해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민·관 거버넌스를 더욱 활성화해 군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에는 구례군 정민호 기획예산실장이 참석하여 대리수상했다.

구례=박순호 기자

담양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예방·관리 중요한 알레르기·영양 교육도 병행

담양군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소아기 때 적절한 치료가 지연될 경우 성인기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알레르기 질환의 조기치료와 예방을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 18개소(어린이집 9, 유치원 6, 초등학교 3)를 안심학교로 지정했으며,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

갔다.

안심학교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으로 관리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려워도 긁지 않기, 매일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기, 보습제 자주 바르기, 엄마가 만들어 주신 간식 먹기 등 아토피 예방수칙 뿐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식품알레르기 및 영양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생활환경 변화 및 면역체계 변화 등으로 알레르기 질환 악화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안심학교와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나주시, 평생학습 민·관·학 협력

나주교육지원청 등 18개 기관과 MOU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나주시가 평생학습 분야 민·관·학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나주교육지원청 등 18개 평생교육 관계기관과 성공적인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별 평생학습 지원을 연계, 발전시키기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기관은 나주교육지원청, 동산대·광주대·고려대 평생교육원,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사)재난구호사협회, 전남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 부설 수어통역센터, 나주시 노인복지관·일자리지원센터·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18개 기관이다.

나주시와 협약기관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지원 △강사 인력풀 공유 및 교육생 관리 △교육생 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연계 △학술자료·간행물 등 평생학습 정보 교류, 시설물 활용 등에 적극 협력해가기로 했다.

곡성군, ‘오감 만족’ 향토음식 코디네이터 교육 추진

내달 14일까지 총 5회

곡성군이 우리음식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향토음식 코디네이터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음식 코디네이터는 TV, 잡지, 광고 등에 음식을 맛깔스럽게 연출하는 맛 디자이너로 불린다. 이번 교육은 ▲음식 코디네이션의

기본원리와 식문화 ▲남도 전통음식과 색채, ▲전통음식의 표현을 위한 색채 이미지 등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곡성의 향토음식에 초점을 맞춰 곡성의 특산물을 이용한 전통, 향토음식 연출 등 위주로 진행된다.

곡성군우리음식연구회장(회장 양미숙)은 “우리음식연구회는 미각, 후각을 만족시키는 조리기술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디자인을 응



복합하여 청각, 촉각, 시각까지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음식 코디네이터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외 과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 일

범 상

한 속

남 다 른 여 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